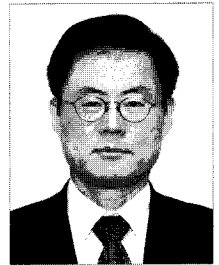


「푸른농촌 희망찾기 운동」(I)



김재수 청장
농촌진흥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회보에서는 김재수 농촌진흥청장님께서 2009년 1월 23일 취임 이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신 「푸른농촌 희망찾기 운동」계획을 취재하기 위해 우리 전국농업기술자협회 농업기술 회보 편집인 윤도현 총장이 청장실을 방문 취재 하였습니다. 먼저 청장님께서 우리 회보 독자들에게 인사를 나누시고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장 김재수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녹색성장 시대에 우리 농업·농촌의 발전과 '신뢰받는 농업, 찾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푸른농촌 희망찾기 운동」에 관한 내용입니다.

녹색성장 시대에 우리 농업·농촌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업인 스스로 농촌의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자원을 바탕으로 농촌의 새로운 가치 창출과 쾌적한 삶의 공간으로서 자

립형 농촌사회를 만드는 주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국민의 식생활 문화도 식품의 안전성과 웰빙 중심으로 변하고, 도시민의 여가 및 노후 생활에 관한 관심 증가로 농촌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관광, 레저산업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청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민간 농업인단체와 연계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친환경·안전 농축산물 생산', '자연환경과 경관가치가 높은 깨끗한 농촌마을 만들기', '농업인의 자립심과 희망의지 확산'이라는 세 가지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농촌의 생명, 환경, 문화가 조화된 자립형 복지농촌 실현을 위해 「푸른농촌 희망찾기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운동과 관련된 주요 내용에 대하여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푸른농촌 희망찾기 운동」은 민간 농업인단체 주도로 지역에서 실행 가능한 사업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 「푸른농촌 희망찾기 운동」은 농업인 단체가 중심이 되어 국민이 공감하고 농촌에서 실행 가능한 사업, 즉 깨끗한 농촌, 안전농산물 생산과 농업인의 자립의지 확산을 위한 교육부터 시작하여 농업·농촌의 전통문화가 범국민 의식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 시작단계인 6월에는 전국 조직을 갖추고 계층·연령별로 특성화된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등의 농업인학습단체가 주도하고, 확산단계에서는 품목별 단체, 환경농업단체, 학계, 소비자단체 등 범 농업인 단체 및 민간기관이 참여하는 '푸른농촌 희망찾기 실천본부'를 결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 또한 본 운동의 조기 확산을 위하여 농촌진흥청과 지방농촌진흥기관은 중앙, 도, 시·군 단위 기술보급 및 교육사업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협력 지원하게 됩니다.
 - 중앙은 교육과정 개발 및 선도지도자 교육, 경진대회 개최, 1과 1마을 자매결연과 경영컨설팅, 사업비 지원 등 행정·제도적 기반을 지원하며, 도는 시범마을 실천과제 컨설팅 및 도 단위 선도지도자 교육, 우수사례 홍보 등을 하며, 시군은 시범마을 선발·운영지원, 농업인 교육, 우수사례 발굴과 홍보 등을 추진합니다.

❖ 「푸른농촌 희망찾기 운동」주요 사업으로는 3대 실천과제가 추진됩니다.

- 첫 번째로 국민의 휴양·녹색체험 공간 조성을 위한 '깨끗한 농촌 만들기'입니다.
 - 농촌환경과 경관을 해치는 폐비닐, 생활쓰레기 등의 처리 및 농촌경관 가꾸기 등을 위한 60개 실천과제를 농가, 마을, 지역까지 확산 실천하여 깨끗한 농촌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농

촌의 문화, 생태자원 등을 활용한 체험학습의 장으로 발전시켜 찾아오는 농촌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 생태연못 가꾸기, 1마을 1가로수 길 만들기 등 마을 경관 조성 등

○ 두 번째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안전농산물 만들기'입니다.

- 농업인은 친환경 농업기술 확산을 위하여 안전농산물 재배, 화학비료와 농약의 적정 사용, 생산이력 기록 등 자율 실천 25과제를 스스로 실천함으로써 우리 농·축산물의 안전성과 소비자의 신뢰도를 확고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 무항생제 퇴비 사용하기, 농약·비료 안전사용 기준 준수 등

○ 세 번째로 농업인의 자립심과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의지 확산을 위한 '의식선진화'입니다.

- 그 동안 우리 농업·농촌은 정부의 막대한 재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 향상과 실질소득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농업·농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 외에 농업인 스스로가 경영의 주체가 되어 소비자의 기호와 수요에 맞는 농산물을 생산하고 농촌의 잠재적 소득원을 발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 이런 점에서 '농업인 의식선진화'는 농촌지도자의 리더십 배양과 농업인 스스로 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주어진 농촌의 잠재적 자원과 경제적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우리 청에서는 앞으로 글로벌 시대에 걸 맞는 창조적 리더십 개발과 해외의 자립적 농업개혁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농업인 교육과정에 적극 반영할 것입니다.

❖ 「푸른농촌 희망찾기 운동」의 조기정착을 위해 농업인단체 등과 협력하여 현장지원을 강화하

겠습니다.

- 농업인학습단체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천하여 선발된 270개 시범마을을 대상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과제 추진을 하도록 실천과제 현장컨설팅, 경진대회 개최 등을 지원하고 6월중에 '푸른농촌 희망찾기 운동 시범 실천의 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본 운동의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시범마을 선도지도자 교육, 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교육, 도 및 시·군단위 농업인 학습단체 워크숍, 홈페이지 구축 등을 통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농업인학습단체와 합동으로 학생 농촌봉사활동 및 시범마을 체험단을 모집·알선하는 등 본 운동의 실효성을 적극 알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할 것입니다.

❖ 잘 사는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한 범국민적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농업은 단순한 식량생산만이 아니라 자연환경과 생태보존, 신소재 산업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농촌사회 또한 전통문화의 보존과 쾌적한 정주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 이러한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성을 이해하시고, 「푸른농촌 희망찾기 운동」을 통하여 농촌을 관광, 레저의 찾아오는 환경을 조성하고, 신뢰받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푸른농촌 희망찾기 운동」은 새로운 국정패러다임으로 제시된 '저탄소 녹색성장'에 맞춰 자연친화적 산업인 농업과 농촌의 미래에 희망과 비전을 실천하는 운동이 되도록 민간 농업인단체와 협력하여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 「푸른농촌 희망찾기 운동」을 통해 농업인뿐 만 아

니라 국민이 농업·농촌의 무한한 가치와 가능성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끝으로 농촌진흥청은 앞으로도 현장과 수요자의 목소리가 반영된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농업인 및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신속한 기술지원을 통해 농업·농촌의 문제를 적극 해결해나가면서 동시에 농업의 새로운 미래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위에서 청장님의 구체적 설명을 듣고 보니 우리 농업·농촌의 밝은 미래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몇 가지 사항을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여쭙보겠습니다.

질문 1 : 푸른농촌 희망찾기 운동을 시작하게 된 배경은 ?

❖ 새로운 국정패러다임으로 제시된 '저탄소 녹색성장'은 자연친화적 산업인 농업과 농촌의 미래에 희망과 비전을 제시

- 농업이 친환경·생명소재산업으로서의 중요성 부각

- 미국 쇠고기 파동, 멜라민 사태 등의 영향으로 국민 식생활이 고품질 외에 안전성과 웰빙 중심의 소비형태로 변화

- 쾌적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농촌의 관광, 레저산업 발전 가능

※ 도시민의 62.8% 노후생활 농촌 희망, 91.1%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인정

❖ 그동안 농업에 대한 지원은 기반투자 및 가격보조 중심의 정책 지원으로 농업인의 정부 의존적인 의식 심화

- 미래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는 '공동체적 자립 정신'을 기반으로 농업인 스스로가 발전주체가 되는 의식선진화가 필요
- 농업선진국의 발전은 농업인 스스로 생산·경영·판매 등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라는 의식 선진화가 핵심 성공요인임.
 - ※ 뉴질랜드, 네덜란드 등 농업선진국의 시사점
 - 농업인의 자율·책임경영과 품목별 조합의 육성 등 공동체적 자립의지
 -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과 농업·농촌 자원의 레저·관광자원화
- ❖ 농업인 스스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잘 사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푸른농촌 희망찾기 운동' 시작
- 농촌진흥청은 농업인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제도화하고 지원

질문 2 : 농촌진흥청에서 '푸른농촌 희망찾기 운동'을 지원하는 배경과 방안은?

- ❖ 농촌진흥기관이 지원하는 이유
- 전국적인 협력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원활한 사업 추진 가능
 - 도농업기술원(9개), 특·광역시센터(7개), 시·군센터(153개)
- 안전농산물, 깨끗한 농촌 만들기는 농촌지도사업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 안전 농산물 생산 사업, 농업인 교육,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등
- 운동주체인 농업인단체는 시·군농업기술센터의 핵심고객으로 상호 협력 가능

❖ 농촌진흥기관의 지원 방안

- 중앙과 지방농촌진흥기관은 중앙, 도, 시·군 단위 기술보급 및 교육사업을 통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협력 지원
 - 중앙은 교육과정 개발 및 선도지도자 교육, 경진대회, 사업비 지원 등
 - 도는 시범마을 지원, 도 단위 선도지도자 교육, 우수사례 홍보 등
 - 시·군은 시범마을 선발·운영지원, 농업인 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등
- 전국 270개소의 푸른농촌 시범마을에 대해서는 1과 1마을 자매결연 등을 통하여 실천과제 컨설팅, 농산물 판매 홍보, 학생봉사활동 연계 등 지원

질문 3 : 시범마을은 어떤 요건으로 선정되었으며 활성화 방안은?

- ❖ 전국 160개 시군에서 농업인학습단체와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련 시범사업 단지·마을 중 우수 지역을 추천 받아 선정 : 270개 마을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특·광역시	계
마을 수	25	33	23	29	28	32	43	39	8	10	270

- 선도지도자 등 지역주민의 깨끗한 농촌 환경 조성 및 안전농산물 생산 실천에 대한 의지가 높아 원활한 사업시행이 가능한 지역
 -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작목반, 품목별연구모임 등 자발적인 마을 조직공동체 및 농업인 생산협의체가 구성된 지역
- 깨끗한 농촌 만들기 실천마을은 농촌 교유의 어머니 및 지역 문화·생태환경의 계승발전과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
 - ※ 농촌전통테마·건강장수마을, 도농교류, 생활환경 개선 등의 시범사업 투입 지역
- 안전 농산물 만들기 실천마을은 안전농산물 생산에 대한 일정 수준(GAP, HACCP 인증 등)을 유지

한 마을 또는 단지

- ※ 친환경종합시범단지, 탑프로젝트시범단지, 친환경인
증 브랜드 단지 등

❖ 시범마을 활성화 방안

- 2009년은 농촌진흥청과 푸른농촌 희망실천본부
에서 1과 1마을 자매결연, 학생봉사활동 연계, 교
육훈련사업 등을 통해 지원
- 2010~2014년까지는 전국 농촌지역 행정리의 5%
수준인 1,800개소까지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 예
정 : 360억원(개소당 20백만원, 국비 50%)

**질문 4 : 푸른농촌 희망찾기 실천본부는
주로 어떤 역할을 하게되며 금년
에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자원,
인력 등에 충당 방법은?**

❖ 실천본부는 '푸른농촌 희망찾기 운동'의 효율
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실행 구심체 역할
을 하기 위해 발족 예정

- 농업인학습단체, 농민연합, 품목별농민조직, 환경
농업단체, 소비자단체, 농업관련 유관기관 등 참
여의지가 높은 단체중심으로 구성
- 실천본부 구성을 위하여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환경단체 등 분야별 간담회를 6월중에 개최하여 7
월에 발족

❖ 실천본부 주요 사업

- 정부 및 유관단체 협력사업 전개
 - 학생 봉사활동 사업, 소비자 농촌체험단 운영
등을 통한 도농교류 촉진
 - 시범마을 자매결연 및 시범마을 생산 농축산물
수요처 발굴 등
-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조성
 - 앰블럼 공모·선정, 1마을 1홍보대사 섭외 및

위촉 활용

- 언론기관과 공동캠페인 전개, 푸른농촌 희망찾
기 홈페이지 운영 등
- '푸른농촌 희망찾기 운동'의 운영성과 평가 및
환류
 - 시범마을 경진대회 및 성과 평가 공동 참여 등

❖ 재원, 인력 충당 방안

- 농촌지도자회 등 3개 학습단체에 지원된 국고 보
조금 일부를 실천본부 사업에 편성토록 유도할 예
정 : 교육훈련, 운영비 등
- 3개 학습단체 사무국 및 농촌진흥청 직원을 파견
하여 행정 지원 예정 : 5명 내외
- 2010년부터는 실천본부 사업비를 지원 예정 : 연
간 1~2억원

**질문 5 : 농업인 의식 선진화를 위한 주요
실행 방법과 기본이념인 '삼생정
신'은 어떤 것인가?**

❖ 농업인 의식 선진화 실행 방법

- 농촌진흥공무원, 선도지도자 등 참여자에 대한 단
계별 교육 추진
 - 청 간부공무원 및 도원장, 도원 국(부)장, 시군
소장 특별교육(6~7월, 305명)
 - 시범마을 선도지도자 및 농촌진흥공무원 교육
(6~7월, 600명)
- 농업인대학, GAP 교육 등 시군센터 및 도원에서
실시하는 각종 농업인 교육과정에 필수과목 선정
: 연 40만 명
 - 농약안전사용, 쓰레기 분리수거, 농경지 주
변 환경개선 교육 등
- 농업인학습단체 자체 워크숍 등 교육과정에 교육
시간 배정
 - 농촌지도자회(13회, 1,480명), 생활개선회(15

- 회, 518명), 4-H회(11회, 1,560명) 등
- 소비자교육, 도시민 공개강좌 등을 활용 운동의 저변 확대

❖ 기본 이념인 '삼생정신(三生情神)은 ?

- 농촌의 자립과 희망의지 고취를 위한 기본이념 三 생정신(공생, 상생, 자생)은 전통문화 및 전통 윤리의 가치를 되살려 현대의 문제를 재조명하고 해결하는데 필요한 기본 의식임
 - 共生(大同, 仁, 禮) : 지구촌 한 가족, 글로벌 시대의 리더십, 녹색환경문화에 대한 공동 목표 실현
 - 相生(인간과 자연) : 협업·상부상조를 전통윤리를 기초로 한 자연과 인간, 도시와 농촌의 상생가치 실현
 - 自生(자립과 자치) : 자립적 개혁 정신과 의사결정으로 자치적 농촌공동체 목표 실현

질문 6 : 푸른농촌 희망찾기 운동 시작단계에서의 농업인학습단체 역할은?

- ❖ 추진 주체로서 실천과제 발굴 및 실천운동 전개
- 깨끗한 농촌 만들기, 안전농산물 만들기 농업인 자율 실천과제 추진 선도 : 시범마을 선도지도자 역할 수행
 - 자율추진 협의체 구성, 시범마을 운영 계획 수립 및 실천 등
 - 푸른농촌 희망찾기 운동 시범 실천의 날 추진 등
- 단체별 공감대 확산을 실천운동 추진
 - 시·도 생활개선회중앙회 임원 교육(6월중, 600명)
 - 한국 4-H 본부 :
 - 초·중등 학생 사이버 백일장(6월)
 - 도시 청소년 시범마을 체험교육(7~8월, 360명)

- 4-H 지도교사 및 교장단 하계 연찬회 (7월, 200명)
- 농촌지도자중앙회 '푸른농촌 희망찾기 운동 전국대회(9월, 2만명)

❖ 농업인학습단체 자체 워크숍 등 교육과정에 교육시간을 배정하여 푸른농촌 희망찾기 운동 공감대 조성 및 확산

- 농촌지도자회(13회, 1,480명) : 자립공동체 운영 및 참여 방법 등
- 생활개선회(15회, 518명) : 전통문화 계승 및 여성 리더십 함양 등
- 4-H회(11회, 1,560명) : 환경, 전통윤리 바로 알기 등

질문 7 : 푸른농촌 희망찾기 운동의 기대 효과는?

- ❖ 신뢰받는 농업과 찾아오는 농촌 조성으로 농가 소득 제고
 - 국민의 웰빙 욕구에 부응하는 안전 농·축산물의 지속 생산 공급
 - 환경오염의 주범인 영농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률 확대로 농업·농촌의 환경자원 보존과 도시민이 찾아오는 농촌마을 조성
- ❖ 농업인에게 희망과 자립의지 확산 ⇒ 농업경쟁력 제고
 - 친환경 녹색성장, 관광·레저 등 농업·농촌의 발전가능성을 제시하여 농업인에게 농업·농촌사회 발전 주체로서의 자립정신 제고
- ❖ 그리고 세부 추진계획 자료는 다음 호에 계속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㉞